

AI서 로봇·데이터센터까지… 삼성SDS, ‘AI 풀스택’ 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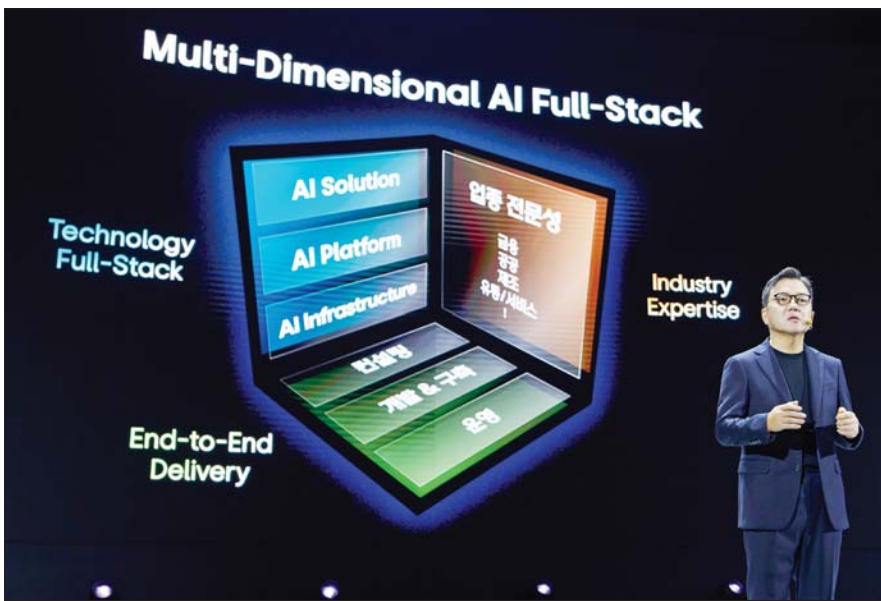
오픈AI·엔트로픽 ‘글로벌 동맹’
이준희 대표 “기업 보안 기여”
MES 현장 경험으로 시장 공략

삼성SDS가 글로벌 인공지능(AI) 기업과 동맹을 강화하고 제조 현장의 로봇 전환(RX)에 속도를 낸다. 기업의 인공지능 전환(AX)을 실제 업무 성과로 연결하도록 돕는 ‘다차원 AI 풀스택’ 전략을 앞세워 AX 시장 공략에 본격 나선다는 계획이다.

◆오픈AI·엔트로픽과 ‘글로벌 동맹’… AI 보안 혁신

이준희 삼성SDS 대표는 8일 ‘리얼 서밋 2026’에서 오픈 AI와의 협력에 대해 “데이터브레이크 이니셔티브는 기업의 내부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개선하는 역할을 한다”며 “국내 기업 고객의 보안 수준을 한 단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SDS는 내부 보안 통제 역량을 증명하기 위해 지난 4개월 전부터 오픈AI와 물밀 작업을 이어왔다. 데이터브레이크 이니셔티브는 오픈AI가 가동하는 사이버 보안 방어 프로그램으로, 삼성SDS는 최근 시범 운영 파트너로 참여하게 됐다. 오픈AI의 최첨단 모델 ‘GPT-6 아스트라’ 등을 통해 기업의 보안 취약점 탐지와 보



삼성SDS가 다차원 AI 풀스택을 추진한다. 이준희 삼성SDS 대표가 8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리얼 서밋 2026’에서 키노트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삼성SDS

안 패치 생성을 아우르는 AI 보안 서비스를 제공한다라는 설명이다.

엔트로픽과도 국내 최초로 ‘클라우드 파트너 네트워크’를 통해 ‘셀렉트 티어’로 나선다. 셀렉트 티어는 인증 엔지니어와 실제 AI 활용 사례를 갖춘 기업을 대상으로 진행하는데, 삼성SDS는 기술 역량을 인정받아 엔트로픽의 최첨단 모델 ‘클로드’와 결합한 서비스로 기업 고객의 비즈니스 문제를 해결하고 AX 전환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이날 행사에서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

(CEO)는 영상 메시지를 통해 “삼성SDS는 기업의 실제 비즈니스 운영 방식을 깊이 이해하고 신기술을 성공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최적의 역량을 갖춘 글로벌 파트너”라고 강조했다.

삼성SDS는 현장 밀착형 엔지니어(FD E)를 연내 200여명으로 확대해 보안 전문 인력을 강화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제조 RX 공략…“핵심 기술은 오텍스 트레이션”

삼성SDS는 지난 25년간 반도체·2차전지·바이오 등 기업의 제조실행시스템(ME

S)를 구축하며 쌓아온 현장 경험을 통해 피지컬 AI 시장 공략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내년 안에 로봇 오텍스레이션 플랫폼을 출시하고 제조 현장의 자동화를 추진한다. 로봇오텍스레이션이란 서로 다른 제조사의 로봇들을 소프트웨어 하나로 통합·제어해 유기적으로 지휘하는 기술이다. 이 사업을 위해 지난 6월 삼성SDS는 AX 사업을 클라우드서비스사업부 내에 RX사업팀과 RX실행팀을 신설했다.

MES(생산관리시스템)는 삼성SDS가 국내 시장에서 독보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제조 기반 IT 서비스다. 삼성SDS는 430여개 제조 자동화 고객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조 관계사 등을 중심으로 구축한 제조 라인만 1000개 이상이다.

피지컬 AI 분야도 글로벌 기업과 협력을 추진한다. 현재 휴머노이드 로봇 전문 기업 ‘윌드 로보틱스’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었으며, 로봇 바디와 같은 기술에 경쟁력을 갖춘 중국 로봇 핸드 기업과도 협업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다.

◆‘브리티웍스’부터 ‘국가 AI 컴퓨팅 센터’까지… ‘다차원 AI 풀스택’ 추진

이날 삼성SDS가 제시한 향후 AX 전략은 ‘다차원 AI 풀스택’으로 요약된다. AI 플랫폼·솔루션에서 AI 인프라를 아우르는 전 과정의 전문성을 발휘해 ‘진정한 AX 실행’을 돕고 이를 성과와 연결한다

는 구상이다.

내부적으로는 자사 업무에 AI를 먼저 적용해 성과를 검증하는 ‘클라이언트 제로’ 전략을 추진해 7대 업무 과정에 AX 핵심 요소를 시범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사내 7대 메가 프로세스인 개발·구매·품질·경영지원·사업이행·마케팅·영업 등이다.

또한 기업 업무 자동화 솔루션을 고도화한다. 오는 10월 대표 AI 에이전트 서비스 ‘브리티웍스’에서 자동화 시스템을 강화한 ‘브리티웍스 코워크’를 출시한다. 이 서비스는 MCP를 활용해 AI 에이전트의 실행력을 극대화한 게 특징이다.

아울러 AI 데이터센터(AIDC) 구축을 통해 안정적인 AI 서비스 운영 역량을 강화한다. 최근 데이터센터와 인수합병(M&A)에 10조원 규모의 자금을 투입했으며 자금 회수 계획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현재 삼성SDS는 AI 인프라 구축 사업으로 구미, 춘천 등에 AI 데이터센터(AIDC)를 건설 중이다. 또 ‘AI 고속도로’로 불리는 정부 주도의 국가 AI 컴퓨팅 센터 구축 사업을 주도하고 있다. 이는 약 1만 5000대의 첨단 GPU가 탑재되는 메가 데이터 센터로, 2028년 가동이

목표다.

/조민선 기자

msjo@metroseoul.co.kr



metro

KT, 피지컬 AI 기반 무인공장 만든다

카이스트·다임리서치와 업무협약
글로벌 진출·사업 기회 발굴 협력

KT가 글로벌 피지컬 AI 경쟁력 강화에 나선다. KT는 카이스트, 다임리서치와 피지컬 AI 기술 개발 실증 사업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무인화 공장 구현을 위한 다크팩토리 플랫폼을 사업화하고, 피지컬 AI 사업 기회 발굴, K-피지컬 AI 글로벌 진출을 협력한다. 다크팩토리란 사람 없이 로봇과 설비로만 24시간 가동되는 무인 공장을 의미한다.

다크팩토리 플랫폼 사업화는 이번 협력의 핵심 내용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2026년 협업지능 피지컬 AI 기반 SW플랫폼 연구개발 생태계 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해당 프로젝트는 제조 현장이 자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AI 기반 무인화·자동화 플랫폼을 개발·실증하는 것으로 카이스트와 다임리서치가 5년간 함께 참여한다.

먼저 KAIST와 다임리서치가 보유한



지난 7일 카이스트 본원에서 열린 피지컬 AI 기술 협력 업무협약에서 (오른쪽부터)KT AX사업부 문장 박상원 전무, KAIST 최성윤 연구부총장, 다임리서치 장영재 대표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KT

물류·제조 로봇 관계 플랫폼과 로봇 기술을 기반으로 제조 공정 자동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주력한다. 또한 실제 산업 현장과 유사한 테스트베드를 구축해 기술을 검증하고, 실증 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제조 분야로 적용 범위를 확대한다.

KT는 데이터 플랫폼을 기반으로 다양한 로봇과 AI 시스템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로봇과 가까운 현장에서 데이터를 즉시

처리해 지연 시간을 최소화하는 엣지 AI와 초고속·초저지연 네트워크 인프라를 바탕으로 로봇의 실시간 판단과 제어도 지원할 예정이다.

로봇의 AI 학습과 성능 검증을 위한 시뮬레이션 기술, AI 에이전트 기반 시스템 통합 역량을 결합해 제조 현장에서 로봇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판단해 작업을 수행하는 피지컬 AI 환경도 구현한다.

/조민선 기자

LGU+, 입문형 스마트홈 ‘홈캠 라이트’ 선택

화재·영상·해킹 보상 보험도 포함

LG유플러스는 입문형 스마트홈 서비스 ‘홈캠 라이트’를 출시한다고 8일 밝혔다.

홈캠 라이트는 월 5500원에 홈캠 이용과 클라우드 저장 등을 함께 제공하는 입문형 상품이다. 화재, 영상, 해킹 보상 보험도 포함한다.

초보 부모와 반려인 등이 주요 고객으

로 부담없는 가격과 보안성을 동시에 제공하는게 특징이다.

보험 서비스의 경우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최대 5000만원, 영상 해킹 피해에는 최대 200만원 한도 내에서 보상해준다.

홈캠 라이트 상품에 포함된 ‘맘카 라이트’는 QHD 고화질을 지원해 주·야간에 영상을 선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고객은 앱을 통해 실시간 알림을 받고 최대 4대의

카메라 영상을 한 화면에서 동시 확인 가능하다.

저장 공간도 넉넉하다. SD카드에 24시간 상시 녹화를 할 수 있고, 클라우드에 20GB 용량 한도로 영상을 안전하게 보관할 수 있다.

보안과 안심 혜택도 눈길을 끈다. 기기별 고유 암호기를 생성하는 물리적 복제 방지 기술 기반의 보안칩을 적용했다. 2단계 로그인 인증과 영상 데이터 암호화도 구현해 고객은 영상 정보를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조민선 기자

SKT, 연말까지 T로밍 데이터 추가 혜택

‘바로’ 요금제, 최대 16GB 추가 제공

SK텔레콤이 T로밍 데이터 추가 프로모션을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로밍 서비스 ‘바로’ 요금제 가입 시 최대 16GB를 추가 제공하는 프로모션이다. 데이터 소진 이후에도 최대 1Mbps 속도로 네트워크를 이용할 수 있다.

회사 측에 따르면 지난 4월 처음 선보인 이후 고객 호응이 이어졌다. 특히 데이터 추가 혜택이 제공되는 바로 8GB 이상 요금제를 선택하는 고객 비중이 프로모션 전 대비 15% 증가했다. 가족 로밍 고객은 누적 505만명을 돌파했다.

프로모션 기간 진행한 자체 고객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T로밍 이용 고객들은 현지 통신사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는 점을 가장 만족하는 요소로 꼽았

다. T로밍은 현지에서 데이터가 불안정한 경우 다른 통신사를 선택해 쓸 수 있다. 현지 네트워크 사정에 따라 고객이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가입과 사용 편의성도 주목됐다. 별도 심(SIM)을 구매하고 설치할 필요 없이 현지에 도착하면 곧바로 로밍 연결된다는 점을 높게 평가했다. 해외 체류 기간 동안 한국 번호 그대로 한국과의 연락이 끊김 없이 지속되어 중요한 연락을 놓치지 않을 수 있었다는 후기도 나왔다.

합리적인 가격에 대해서도 많은 고객이 만족감을 보였다. 특히 가족로밍 고객과 청년 고객들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가족로밍은 3000원만 추가하면 가족 구성원 최대 5명이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다. 이에 따라 1인당 요금 부담이 약 6000원대로 크게 낮아진다.

/조민선 기자

메타빌드, AI 플랫폼 앞세워 공공 AX 정조준

행정·복지·세정·예산 등 분야 확대

인공지능(AI)·연계 플랫폼 기업 메타빌드가 행정·복지·세정·예산·국가지식 분야로 AI 전환(AX) 사업을 넓히고 있다고 8일 밝혔다.

메타빌드는 AI 활용 초기 상담과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기반으로 ▲AI 기반 대국민 복지안내 솔루션 ▲복지행정 AI 안내도우미 ▲복지지역특화 AX-스프린트 ▲지방세 AI 상담 서비스 ▲AI-ON 예산 플랫폼 사업 등에 선정됐다. 국가지식정보 플랫폼 집현전의 ‘AI 국가지식상담서비스’도 구축 중이다.

회사는 AI 통합 플랫폼 ‘LLaMON AX’와 통합 연계 미들웨어 플랫폼 ‘MESIMAX’를 주력으로 내세운다. LLaMON AX에는 에이전트빌더, 도큐먼트 AI, 검색증강생성(RAG), 시각언어모델(VLM) 기반 광학문자인식(OCR), 음성 기능이 들어간다. MESIMAX는 기업서비스버스(ESB), API 게이트웨이, MCP 게이트웨이, 데이터허브, 망연계 등으로 구성된다.

두 플랫폼은 통합뿐 아니라 개별 제품 단위로도 GS 인증을 받아 조달 소용품을 통해 공공·금융 분야에 공급된다.

/김보민 기자 kbm@